

다들 우리나라에 '빨갱이'가 있다면 영어권에는 'Reds' 가 있다는걸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부터 아나키스트까지 죄다 싸잡아서 종북좌파인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영어에는 스탈린주의자만을 콕 찝어서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Tankie'다

영국 공산당 지지자를 부르는 멸칭으로 시작되었으며, 동구권의 시위를 진압한 탱크 조종수와 같다는 의미로 탱크를 따와서 만든 단어다.

지금은 비하적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고, 그냥 현실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좌익을 부르는 용어가 되었다. 물론 밈이지만.



'제국주의에 맞서 북조선을 수호하자!' '스탈린은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외국에서도 북떡과 스탈린이 참 잘타는 장작이라는걸 알 수 있다



흔히들 '탱키' 하면 생각되는 이미지



친스탈린-홀로도모르 부정-친북적 관점-크메르 루주좌 옹호로 이어지는 '탱키화 과정'

다들 오늘 하루쯤은 제국주의와 파시즘에 맞서 혁명의 고향을 수호한 스탈린 동지에게 감사인사를 하는게 어떨까? 고마워요 스탈린 동지!!